

自然景觀위에 人工還境 조화시켜야

造景의 領域확대와 專門性 확보에 힘쓰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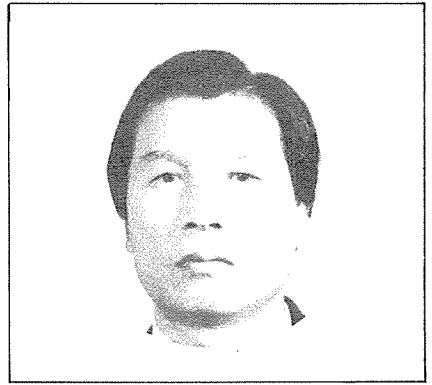
『造景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自然을 파괴하지않고 자연을 최대한도로 보존해가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韓國造景學會 安奉遠회장(경희대 산업대학원 조경학과 교수)은 産業化에 따른 급격한 都市化로 인해 우리 생활주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自然을 도입하여 人工環境과 조화를 꾀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環境의 質」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로 造景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人工의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파괴하지 않는 것이 비용으로나 景觀面에서 볼 때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開發에 따른 불가피한 자연의 파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대열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先 경제개발 後 社會복지라는 입장에서 국가시책이 주도되어온 까닭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과밀한 현상, 군소 구조물의 밀집, 공원 등 녹지대의 부족, 협소한 도로폭 및 무질서한 도로망, 오염물처리등 생활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는 환경오염과 도시경관문제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많이 소멸된 지역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都市造景은 그 범위가 광범하고 다양하여 공원, 녹지대, 가로변, 수목, 교통질서, 하천과 건축물 등의 形態美 또는 건축물에 부착된 간판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종합적으로는 도시



◇安奉遠 회장

전체에 관한 경관을 조정하고 유지 관리·보호하는 것으로 어느나라의 대도시에서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安회장은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건축·조형물의 유지·보수에만 신경을 써온게 사실이나 최근들어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도시조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여의도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으며 40여명의 文化財위원 가운데 2명의 조경전문가를 참여시킨 것도 조경의 필요성을 관계당국에서 인식한 결과라고 말한다.

安회장은 무작정만 환경개발만이 최선책이 아니므로 종래의 개발계획 중심에서 진일보하여 환경의 보전 나아가서 환경을 새롭게 창조하는 위치에 까지 확대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다.

『조경이란 건축이나 토목 또는 도시계획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과학기술분야로써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어진 토지를 보다

아름답게 경제적으로 개발·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미술이 종합된 종합과학 예술입니다。」安회장은 조경의 특성은 역시 자연과 인공환경과의 조화에 있으므로 과학적인 기반위에 예술적인 감각이 잘 가미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야말로 건축, 도시공학등 공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상태,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까지도 포용해야 하는 다양한 학문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건축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된 것과는 달리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먼저 지역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차원에서 조경계획이 수립되어 개발 및 시설계획시 이를 기초로 그 지역의 특수여건에 부합되고 무리없는 설계가 案出되어야 하지요』安회장은 조경의 양식도 정치·문화·종교·풍습과 그나라의 기후풍토 등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는데 오늘날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전통성 보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동경심을 반영시킴으로써 자연에도 전하기 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경학의 역사가 얼마 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경학을 마치 園藝學의 일분과 내지는 造園技術(gardening)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조경학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조경가의 위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조경영역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安회장은 그러나 불과 십수년이라는 짧은 역사속에서도 조경분야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국토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해 왔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정부기구내에 조경을 지도·육성해줄 전담부서가 없고 造景職 자체도 없는 실정이며 11개 종합면허업체와 90여개에 달하는 單種免許업체가 있지만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상태가 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으로서 조경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전공분야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안타까와 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大學에 造景學科가 개설

되어 해마다 천여명의 조경학도가 배출되고 있으며 韓國造景學會도 회원수 5백여명에 단체 회원 14개 기업을 포용하는 學會로 급성장, 짧은기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왔다고 해왔다.

『학회의 고유업무인 연구및 학술활동을 더욱 강화해 학회지는 1년에 3회 이상, 학술발표회는 2회 이상 갖도록 하는 한편 전문분야별 연구를 위해 학술분과위원회 제도를 정착시켜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安회장은 이와 함께 後學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 주기 위해 조경학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교재성격을 띠고 있는 「造景學大系씨리즈」를 「조경계획론」에 이어 8권까지 펴낼 계획이며 조경학과 졸업생의 취업기회와 조경영역의 확대를 위해 조경법규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각 대학별로만 실시되어 왔던 造景作品 전시회를 올 가을부터는 학회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함으로써 우수작품의 발굴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조경의 참모습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작정인데 금년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앙청 지하철학사 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금년 9월초 프랑스에서 열리는 IFLA(국제조경가협회) 총회에 30여명의 회원들을 파견하여 최신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는 한편 오는 92년도 IFLA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회는 조경의 독자성 내지 전문성의 확보와 조경의 영역을 사회에 바로 인식시켜 나가는데 힘쓰는 한편 조경업계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安회장은 학계나 업계를 막론하고 조경인 모두가 협력해서 조경의 특수성, 조경의 영역을 관제당국이나 사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작정이라고 다짐한다.

(權光仁 記)